

‘애국·생활·대중불교’로 지상불국 실현

천태종 원각불교사상연구원 ‘천태종단의 3대 지표’ 학술대회

천태종이 상월 스님(1911~1974)에 의해 중흥된 지 40여 년이 지났다. 짧은 역사에도 천태종은 신도 수 200여 만명으로 조계종, 태고종과 한국불교 3대종단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상월 스님은 천태종을 세우며 실천강령으로 천태종 3대지표인 애국불교와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강조했다. 스님은 천태종 3대지표를 통해 지상불국의 실현을 발원했고, 지상불국을 위한 천태종도의 노력을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번 가운데 원각불교사상연구원(원장 권기종)이 6월 13일 우면산 관문사에서 ‘천태종단의 3대 지표’를 주제로 2009년도 천태불교학술대회를 개최해 눈길을 끈다.

행사에서는 권기종 원장을 비롯해 김상현·정병조 등 국내 교수, 이필원·정주대·외래강사, 박소령(중국대 박사과정)씨, 이길주·정주대·외래강사 등이 발표했다.

#진리 수호가 호국·애국의 길

김상현 교수(사진)는 주제발표 ‘애국 불교의 이념과 성격’에서 “애민애족은 불교의 자리(自利와 이타(利他)의 또 다른 표현”이라 주장했다.



상월 스님은 교시문에서 “불교는 국가 민족과 흥폐의 운명을 같이해 교운이 융성할 적엔 국운도 융성했고 교운이 쇠퇴할 적엔 국운도 쇠퇴했다”라고 말했다.

한국불교의 호국적 성격은 <인왕경(仁王經)> <금광명경(金光明經)> <법화경(法華經)> 등 호국삼부경과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해 불행했던 수많은 법회, 의승병의 활약에서 알 수 있다.

삼국시대 신라의 호국불교사상은 삼국통일의 중요한 사상적 토대가 됐다. 고려시대에는 거란과 몽고의 외침을 물리치기 위한 대장경 조판과 항마군으로 불리는 의병의 활약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 당시 서산·사명 등 의승장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김 교수는 “애국불교는 호국불교

의 전통을 계승한다”며 “애국불교는 (호국불교)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성격을 갖는다”라고 설명했다.

애국불교는 “일언일구(一言一句)의 은혜나 일사일물(一事一物)의 은덕도 잊지 말고 보사(報謝)하라”는 상월 스님의 지은보은(知恩報恩)의 가르침에서 시작했다.

김상현 교수는 “상월 스님은 국가 사회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늘어나는 현상을 걱정했다”며 “애국불교의 실천과제로 도의 재건, 사회 정화, 복지사회 건설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애국불교의 실천과제는 당시의 새마을 운동 등 사회적 운동과 반공 정신에 바탕한 자주국방의식과 맞물려 대중적 지지를 얻었다.

김 교수는 “상월 스님이 ‘불교도 는 반공정신으로 무장하고 총력안보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한다’라고 강조한 것은 종교 자체를 부정하는 사회주의로부터 불교를 보호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현 교수는 “<금광명경>의 ‘호국은 4개의 경계를 지키는 것(護四諸境界護國)’이라는 말은 호국이 진리를 지키는 율타리라는 의미”라며 “호국의 ‘국(國)’은 어떤 한 국가나 국토만을 의미하지 않고 내 몸과 가정 사회 국가 등이 모두 나라이고 국토”라 강조했다.

김 교수는 “사회를 위한 노력은 자기의 행복을 위한 것이요, 국가를 위해 진척하는 것은 자기의 자유를 위한”이라며 “애국불교는 배타적 민족주의에 한정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생활과 불교적 이상 소통

정병조 교수(사진)는 ‘생활 불교의 이념과 실천’을 통해 “생활 불교는 불교가 생활문화화진흥의 주제로서 그 기능을 살려야 한다는 상월 스님의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500년의 역물로 불교계가 위축됐을 뿐만 아니라 점복 등이 만연했던 모습에서 상월 스님은 기도예참에 주목해 생활 속에 불교의 진

리를 실행하고자 했다.

정 교수는 “생활불교는 불교가 생활 속에 뿌리내려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출발했지만, 여기에는 현실과 유리됐던 기성 불교에 대한 비판이 담겨있다”라고 말했다.

생활불교의 실천과제는 △기부불교에서 작복(作福)불교의 지향 △유한(遊閑)불교에서 생산불교의 지향 △우상불교에서 실천불교의 지향 △생활 즉 불교의 이념 실천이다.

<천태종약전>은 이를 다시 지혜 복덕 창조, 중경아선 정진, 생산불교 개척으로 요약했다.

정병조 교수는 “생활불교의 실천과제는 생활 그 자체가 곧바로 불교적 이상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선언”이라며 “생활불교의 핵심은 생산불교 즉 받는 불교에서 주는 불교, 복을 바라는 믿음에서 복을 짓는 인연을 쌓는 불교로의 질적인 전환”이라고 주장했다.

관념불교에서의 탈피는 생활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다. 상월 스님은 올바른 삶의 방편으로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의 열가지 죄업을 소멸하는 삶인 심선업을 강조했다.

심선업은 △산 목숨을 해치지 않는 일 △주어지지 않은 물건을 빼앗지 않는 일 △그릇된 이생관계의 근절 △망령된 말을 멀리하기 △속이 있는 말 하지 않기 △이간질시키는 말 삼가기 △악담이나 욕 하지 않기 △인색하고 탐내는 마음 없애기 △원한이나 성내는 마음 풀지 않기 △그릇된 견해 버리기 등이다.

상월 스님은 올바른 생활의 완성에는 부모·자식간의 윤리, 정당한 남녀관계, 스승과 제자의 윤리, 국가·사회에의 도의 등 윤리 재건에 있다고 여겼다.

정 교수는 “생활불교는 인간복지 운동”이라며 “현재의 도덕적 공동 현상에 한국대포 종교인 불교와 개신교가 공동의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병조 교수는 문화의식 고양의 장으로서 사찰을 개방할 것과 불교의례의 개선, 불교단체의 상업화 경향을 불식시킬 것 등을 주장하며, 사찰단위의 생산적 사업을 장려하자고 제안했다.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권기종 원장(사진)은 주제 발표 ‘21세기 세불교운동으로서의 대중불교’를 발표했다.



대중불교는 사부대중의 불교를 뜻하는 말로 사부대중이 함께 수행하고 종단 운영도 함께 하는 불교다.

권 원장은 “한국불교는 출가자중심의 산중불교다. 사회가 불교를 위해 존재하며, 신도가 절을 위해 있는 것으로 전도돼 왔다”며 “상월 스님은 전통적인 승가중심의 출가불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새로운 불교를 모색하던 중 대중불교라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상월 스님은 대중불교의 수행방법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열불수행을 채택했다. 또 계율을 재해석해 승단의 중심계율을 십선계(十善戒)로 한정하고 변화한 계목(戒目)들을 축소했다.

권기종 원장은 “대중의 불교가 되기 위해서는 출가자는 담을 낮춰야 하고 재가자도 출가자와 함께 수행할 수 있어야 했다”면서 “대중이 함께 수행하는 보편적 불교가 되기 위해 불필요한 권위주의를 벗어난 실천적 중심의 교단이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천태종은 대중불교를 위해 사원의 도시화·개방화 등을 이뤘다. 신도가 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절이 신도를 찾아 도심에 자리 잡았고, 신도 교육 비용은 모두 종단이 부담하고 있다. 또 천태종 사찰을 1년 365일 24시간 개방해 누구나 수행공간으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제 앞서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법어를 통해 “천태종의 3대 지표는 오직 구제중생이라는 근본 서원을 바탕으로 자리타타의 대승 불교를 구현하는 실천수행”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차마교역 이끈 마방의 삶을 보다

국립중앙博 8월 16일까지 ‘차마고도의 삶과 예술’ 특별전

K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제작돼 관심을 끌었던 동서교역로 ‘차마고도(茶馬古道)’와 관련한 특별전이 열린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은 6월 16일~ 8월 16일 상설전시관 1층 특별전시실에서 ‘차마고도의 삶과 예술’을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한다.

‘차마고도’라는 이름은 대표적인 교역품의 명칭을 빌린 것이다. ‘차마고도’는 서남실�크로드의 중심축으로 티베트 고원지대를 중심으로 전개된 유목문화권과 중국 남부 원산·쓰촨성을 잇는 교역 네트워크를 말한다.

이번 전시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을 비롯해 화정박물관, 통도사 성보박물관, 대원사 티베트박물관, 실크로드박물관, 티베트박물관 등 유물 200여 점이 전시된다.

전시는 차마교역의 카라반을 이끈 마방(馬幫)의 인생 여정에 맞춰 스토리텔링 전시기법으로 구성됐다. 여섯 개의 주제에 따라 △



국립중앙박물관 차마고도 특별전 전시물 중 ‘민다라’.

‘희망의 길, 차마고도를 향해 떠나다’ △ ‘차의 고향, 운남과 사천에 도착하다’ △ ‘행복한 발걸음, 집으로 돌아오다’, △ ‘소금교역, 히말라야를 넘어 네팔로 가다’ △ ‘오체부지, 상금리라를 찾아가다’ △ ‘죽음 그리고 환생, 자연에 순응하다’의 순으로 이뤄졌다.

전시 마지막 부분에는 스웨덴 탐험가 스벤 헤딘(Sven Hedin, 1865~1952)이 1906~1908년 활

영한 티베트 사진이 전시된다. 사진들은 스웨덴 국립민족학박물관이 최초 공개한 자료로 100년 전 티베트 인민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기존의 티베트 관련 전시가 밀교예술에 주안점을 뒀다면 이번 전시는 종교예술 이외에도 차마고도 상의 다양한 민족의 삶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차마고도인의 삶을 생생하게 느끼고 차마고도 상의 다양한 민족에 의해 영위되었던 예술세계도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시 기간 중에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을 총괄한 KBS 김무관 PD의 강연회 및 초등학교를 위한 전시실 활동지 배포 그리고 룬다 깃발 만들어보기 체험 등 다양한 전시 연계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체험가방 참가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museum.go.kr) 참조. 선착순 접수. (02)2077-9552

조동섭 기자

‘종교예술’이란?

고려화불학술연구회

계대사 고려화불 학술연구소(소장 혜담)는 6월 12~15일 ‘예술, 치료 그리고 영성’을 주제로 양양 낙산 비치호텔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행사는 혜담 스님,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혜원 스님을 비롯해 당 티란 베트남 국립대 교수, 원관람 중국 칭화대 교수, 스티븐 페스마이어 일본 교토대 박사 등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혜담 스님은 “이번 행사는 종교예술이 표현하는 궁극적 지향성과 치유적 성격을 조망하고 오늘날 요구되는 영성적 가치와의 합일을 논하는 자리가 됐다”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삼국유사” 심층 연구 우선돼야

군위군, ‘21C 문화코드 삼국유사’ 세미나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 학제간 연구 등 심층적이며 종합적인 연구가 우선돼야 한다.”



6월 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모습. 맨 왼쪽이 김상영 교수.

미래 고부가가치 콘텐츠산업이 떠오르는 가운데 한국적 문화유산 원형으로 삼국유사가 주목받고 있다. 삼국유사를 통한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해 한국판 <해리포터>를 꿈꾸는 자리에서 삼국유사 연구에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조동섭 기자

군위군은 6월 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21세기 문화코드 삼국유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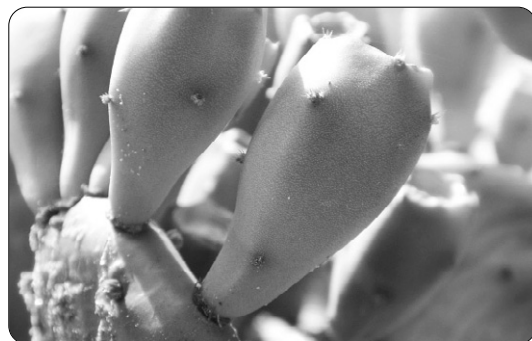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는 주제발표 ‘삼국유사의 연구 현황과 과제’에서 “삼국유사학이라는 영역이 가능할 정도로

<삼국유사> 연구는 종합학문의 수준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저자 일연 스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삼국유사 판본 수집과 정리를 바탕으로 학제간, 학자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삼국유사 연구를 위해 (가칭)삼국유사학회나 삼국유사연구원 등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학

공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법인 예천 연꽃마을 이사장이신

정안당 흥법 대선사께서 세연 이진하여

2009년 6월 17일 0시 41분 열반에 드셨습니다.

■ 49제 일시 : 2009년 8월 4일 오전 10시 (음력 6월 14일)

■ 49제 장소 : 경북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 234번지 사회복지법인 예천연꽃마을 대한불교조계종 법흥사

- 상좌 : 수진스님
- 이사 : 이양우, 송균호, 정막동, 지오식
- 감사 : 고성기, 서영환
- 유발상좌 : 박재성, 백상현, 박대수, 김민우, 김동원
- 재가유족 : 서경석, 서민석, 서남석, 서윤하

연락처 : 054)653-7714